

# 1930년대 복식의 기호학적 분석

## - 신문소설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

조진숙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본 연구는 복식이 착용자의 신분, 지위, 가치관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무언의 전달체로서, 개인의 생각이나 말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복식의 착용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기호의 선택이라 규정짓고, 기호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을 통해 그 의미작용을 거쳐 여성의 가치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복식 및 복식행동은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도덕적·미적 기준, 가치관, 기술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시대와 신분, 지위, 가치관에 따라 특성을 지닌 복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이 착용하는 복식으로 상호작용시 상대방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 근대소설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흙”(이광수, 1933), “삼대”(염상섭, 1931)를 선정하였다.

“흙”은 동아일보에 실린 장편 소설로서 온 조선에 농촌운동이 일어나 모두 잘 살기를 기원하는 계몽사상과 민족주의 의식이 강조된 작품이며, “삼대”는 조선일보에 실린 장편소설로서 식민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사실적으로 가감없이 묘사한 작품으로서 삼대를 통해서 도시중산층의 삶의 모습과 지식인의 삶의 모습을 주로 나타낸 작품이다.

분석방법은 일찍부터 의상을 기호학적 사상의 하나로 예견한 소쉬르의 구조주의 기호학의 기본 개념과, 그 뒤를 이은 롤랑바르트의 의미작용의 기호학의 기호체계를 위주로 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여성은 자기의 운명을 감수하며 묵묵히 살고 있으며 유행을 거의 모르고 전통을 고수하는 한복을 착용하였다.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여성은 모두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로서, 이들의 복식은 여학생차림 - 흰저고리, 김정 통치마, 트레머리 - 와 양장차림을 하였으며, 김정구두, 핸드백도 함께 착용하였다.

그러나 작품속에서 여학생차림은 ‘수수하다, 조용하다’로, 양장차림은 ‘화려하다, 세련되다’로 표현되었고, 여학생차림은 긍정적 성향의 신여성이 선호하는 것으로, 양장차림은 부정적 성향의 신여성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성향의 신여성이 남의 눈에 띄지 않고자 할 때에는 화려한 복식에서 수수한 여학생 차림으로 변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획득했을 때 변화된 최초의 것 중 하나는 복식이며, 복식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호임을 알 수 있다.